

당정청,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30% 추가 확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도입·스마트미터 보급등 추진점점

당정청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연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했다.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

화한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100kW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100kWh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원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에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 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

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상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1시30분에 산업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안안건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지구는 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 나갈 생각"이라며 "폭염과 한파도 특별 재난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 피해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법개정을 하겠다. 아당과 협의해서 8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도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름철 전력예비율은 7.4% 수준이다. 추가 예비비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발언을 언급한 뒤 "합리적 방안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월 10일→둘째주 수요일로

이달부터 '축산환경 개선의 날'이 매월 10일에서 둘째주 수요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날짜'에서 '요일' 기준으로 변경·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축산 농가의 축사 청소 및 주변 정리를 생활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농림과 생산자단체에서 제각각 실시해오던 '클린UP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축산농가 청소의 날'을 통합한 것이다.

통합 당시 매월 10일로 정했지만 주말·공휴일과 겹치거나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소득의 날'과 별개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산 농가는 이달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축사·축분 시설과 주변 경관을 자체적으로 점검·정소하게 되며, 농림과 생산자단체가 일주일 뒤인 셋째 주 수요일까지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농협중앙본부 임원 연이어 전북 방문, 농가 위로·피해현황 점검 등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협 중앙본부 임원이 연이어 전북을 방문 더위에 지친 취약계층 농업인 방문과 폭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지난 6일 임실군 오수면 고추, 감 등 결실불량 피해 농가를 찾았고 지난 5일에는 유전형 화원종합지원본부장이 익산시 망성면 상추 고사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전북 농작물 피해가 250농가 141ha가

일소피해, 햇볕의 데임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축피해는 닭, 오리 등 1백만 마리가 폐사 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폭염이 앞으로 2주 정도는 지속될 것 같다"며 "농협은 범농협 차원에서 취약계층 방문, 피해현황 점검, 양수기·생수 지원, 농협 사무소 무더위 고객 센터 제공 등 폭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집배원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지난 6일 전주우체국을 방문 폭염기 국민 배달서비스의 차질없는 수행 위해 고생하는 집배원들에게 수박화채를 제공, 정담을 나누는 '집배원의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집배원들에게 시원한 수박화채를 제공 폭염 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소중한 우편물을 전달하고 애쓰는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주제로 격려 없는 정담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했다.

현재, 전북지방우정청은 집배원들의 자유로운 여름 휴가 사용과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우정청·우체국 책임직 및 내근직원들이 약 한 달간 우편배달에 동참 '일린 생수, 식염포도당 콜로시' 등 다양한 냉방용품도 수시 지급, 배달 중 시원한 수분삼취를 위해 '전북지역 920여명'의 집배원들에게 보냉백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철 청장은 "직원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폭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휴게시간 연장, 냉방용품 보급, 배달 지원' 및 현장 격려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7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제9회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 날들이 축하행사를 성황리에 했다.

전북은행 제9회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 날들이 축하행사 성료

다문화가정 10가족 총 40명 친정방문 기회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와 7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제9회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 날들이' 축하행사를 성황리에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광호 회장 다문화가정 10가족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기쁨을 함께 했다.

올해로 9회째 맞는 이번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친정 방문을 하지 못했던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 기회를 제공, 한국생활에 애정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 됐다.

또한 선발된 다문화가정 10가족 총 40명에게는 양복한복권 전북은행 100만원과 대한적십자사 여행체제비가 지원,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북은행의 도움으로 고향 방문한 다문화가정은 모두 117가족 429명,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9000만원에 달한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에 다녀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 앞으로 전북은행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 진안군지부장 폭염피해 취약 농업인 위로 방문

'농협진안군지부장 김형만'과 '진안농협 조합장 허남규'은 지난 6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향면 하안마을 찾아가 농가의 피해 현황을 점검, 마을회관 어르신들을 찾아 과일과 생필품을 전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농업인 폭염피해에 대해 염려해 주고 관심을 갖고 방문해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웃음과 함께 고마움을 표현 했다.

한편, 농협진안군지부장 김형만은 "진안읍 인삼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 폭염 피해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영농활동은 물론 농업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며 "진안군과 함께 폭염으로 지역내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순창군 호계마을 경로당에 선풍기·수박·음료 전달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7일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자매결연을 맺은 순창군 호계마을의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수박 및 음료 등을 전달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국민의 농협'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진행 됐다.

김장근 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에 지친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일일이 안부"를 물으며 "시원한 수박과 음료 드시고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부는 농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은행, 도민과 고객의 사랑을 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편,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 폭염에 지친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지난 7일까지 약 3만여 명 생수를 '무더위 쉼터'를 찾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준법감사인 선임일: 2018. 01. 31
 (상위발자: 2018. 1. 30 현재)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1588 - 4477
www.jbbank.co.kr